

#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오지현	소속(학부/과)	반도체시스템전공
파견 학기	2022.04.01.~2023.03.31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에나응용과학대학교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막연하게 해외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를 키워보고 싶기도 하였고, 4학년이 된 시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못하고 졸업하기에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신청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출국 전 가장 신경 쓰였던 점은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비자예약 일정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현지에 가서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해놓고 갔던 점이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또 비자를 준비하며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 보니 출국 전 마음준비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공권은 비자가 나오자마자 신청하였는데 루프트한자로 왕복 비행권을 끊었습니다.

에나응용과학대학교의 경우, 한국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기숙사를 3순위까지 신청하였습니다. Carl-Zeiss 기숙사가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있고 시설도 신식이라 가고싶었지만 저는 3순위로 지원했던 Siegfried Czapski Stasse 2에 배정받았습니다. 연장을 할때는 계약 만료 몇 달 전에 담당자에게 메일과 서류를 보냈습니다.

에나응용과학대학교에는 영어로 수업하는 과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전공과 교양의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본교에서는 전자공학부이지만 가서는 Scientific-Instrumentation의 bachelor 과정으로 수업하였습니다.

###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지역 예나는 독일 튀링겐주에 위치해있으며 에르푸르트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예나응용과학대학교 뿐만 아니라 예나대학교(실러대학교)도 있어 학생의 수가 많고 주변에 파라다이스 파크라는 큰 공원과 마트가 여러 개가 있어 주거하기에 적합합니다. 확실히 여름에는 해가 오래 떠 있던 것에 비해 겨울에는 5시만 되면 어두워져 활동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학교증을 보여주면 튀링겐주에 있는 교통이 무료여서 기차를 타고 바이마르나 에르푸르트로 놀러가기에 좋습니다. 또한 약간 언덕에 위치해 있어 공기가 맑고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Scientific Instrumentation 전공에서는 수업 듣는 학생 중 몇몇의 독일학생과 교환학생들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인도학생이었고 교양은 독일학생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수강하였던 scientific computing은 교수님이 재미있고 발음도 좋으셔서 수업 듣기 좋았습니다. 또한 시험때도 예상 문제를 알려주셔서 시험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soft skills는 영어에 관심 있는 여러 나라 친구들이 함께 한 주제를 가지고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친해지기 좋았고 듣고 난 후,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학기때는 medical에서 수업하는 techical English 수업을 들었는데 해당 전공이 아니라 교수님에게 참여를 해도 되는지 여쭙본 다음 수업을 들었습니다. German 수업은 A1 레벨 수업이었는데 교수님이 반복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옆자리 친구와 대화하는 식으로 진행하여 재밌었습니다. English purposes 수업은 매 시간 교수님이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오신다는 느낌을 받았고 ted나 다른 영어 강의, 문법과 단어 같은 다양한 방면의 수업을 다채롭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숙소 비용은 처음에 보증금과 첫달 월세를 내고 매달 259유로 였습니다.(월세+인터넷) 처음에는 더 썼던 것으로 기억하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더더욱 비싸졌습니다. 또한 같이 거주하는 flatmate들 중 한명이 라디오세를 정산하여 내었고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한 보험비도 나갔습니다. 제가 거주했던 Siegfried Czapski Stasse 2은 4명에서 각자 방이 있고 주방, 식사공간,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식이었

습니다. 해당 기숙사는 방과 나머지 공간도 넓은 식이라 매주 돌아가며 청소할 구역을 정하여 생활했습니다. 이 곳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오르막길이 있어 짐을 옮기기에 힘들었고 아무래도 신식보다는 못한 점이 있어, 이왕이면 carl-zeiss 기숙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예나응용과학대학교에서는 교환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따로 활동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korean stammtisch라는 언어 교류가 매주 있어 그곳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하였습니다. 또한 soft skill 수업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어 그것을 통해 활동을 하였습니다.

###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동아리를 따로 들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학교 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행사를 통해 축제나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 mensa(학식느낌)도 있으나 초반에만 이용하고 잘 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은 가서 등록을 한 후에 가방을 사물함에 맡기고 책만 들고 가서 공부하는 구조입니다.

###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독일이 흔하게 재미없다는 식으로 들어왔었는데, 갔다와서 느낀 점은 독일 사람들은 흥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다가가는 사람의 수는 적은 느낌이라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가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다양한 문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영어로 말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 인 것 같습니다. 말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번역기를 들고서 얘기를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유학 생활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위기대처능력이나 상황판단능력 또한 생겼고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독립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갔다와보며 학생 때 쉽게 하지 못하는 경험을 했다는 점이 뿌듯하고 지냈던 1년이 가치 있었기에 교환학생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